호남권 KTX 좌석난… 평택~오송 구간 '병목현상' 원인

평택~오송 2복선 공정률 22% 그쳐… 완공 2027년 이후

KTX-1 노후화·선로용량 한계… 호남·경부선 증편 불가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평택~오송 2 복선 건설 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현재 호남선과 경부선의 고속열차의 추가투입이 불가능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호남 정치권에서는 호남선과 전라선 KTX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 충북 오송~경기 평택 46.9㎞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호남선뿐 아니라 경부선에서도 고속열차 추가투입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노선별 KTX 운행 횟수는 수요를 기반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차량과 선로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열차 대수인 선로용량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호남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3일 광주송정역에서 호남선과 전라선의 추가투입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경부선과 호남선의 KTX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하루평균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 운행된다. 좌석 수는 각각 9만 9000여 석과 3만7000여석으로 경부선이 2.6배 많다. 주말에는 경부선이 21회, 호남선이 1회만 증편한다. 증편은 주말과 명절 등에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열차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하게 된다.

특히 호남선 외 전라선에도 평일 36회를 투입하는 등 노선별 열차 운행 비중은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의 순으로 운행 횟수가 많다.

문제는 호남선 외에도 경부선의 증편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KTX의 하루 평균 이용객을 살펴보면 경부선의 이용객 수는 12만1000명으로 승차율은 67.1% 이용율은 113.6%로 조사됐다. 반면 호남선은 하루 3만5000명이 이용하며 승차율과 이용률은 각각 60.5%와 92%로 집계돼 경부선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철도업계 관계자는 "호남선의 좌석 부족 문제는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부족과는 다르다"면서 "이는 영·호남의 차별이 아닌 전국적 철도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KTX 등의 고속열차는 영호남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교차로 운행한다.

전체 KTX 차량이 경부와 호남, 강원, 중부지역까지 운행하게 된다. 선로 영업거리도 경부선과 호남·전라선 간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철도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좌석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오송~평택 간 병목현상과 ▲고속철도 차량 부족에 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합쳐지는 오송역 부근부터 평택 인근까지 이어지는 충북 오송~경기 평택 46.9㎞ 구간에서는 KTX 119회, SRT 60회 등 총 179회의 운행 슬롯(운행 횟수)을 모두 사용 중이어서 현재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송~평택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오송 구간 2 복선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공사 진행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평택~오송 구간 2 복선 건설의 기본계획상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였다. 그런데 최근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22%(올 6월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별 철도수요가 확연한 신규 노선사업에 비해 건설사업 지역에 대한 직접적 혜택이 없다는 것이 건설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철도업계는 설명했다.

철도업계는 평택~오송 구간 2 복선 건설이 이르면 오는 2027년 12월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제 운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고속열차는 총 86편성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46편성이 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된 KTX-1이어서 고속철도 운영에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KTX 차량 증가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KTX 초기 모델 교체 사업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래 고속철도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17년(24편성)과 2019년(8편성) 2회에 걸쳐 총 32편성의 고속철도 차량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에 대한 판단 문제로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 미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 예측되기도 했다. 수요예측의 기본자료인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에서는 현재 공급제약이 고려된 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좌석부족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수요층과 관광수요 등 주중보다 주말에 발생하는 수요층의 수단선택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요는 조사된 통행량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고속철도 좌석 부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철도 수요예측이나 건설사업 지연 등 종합적인 요인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철도의 건설, 수요 등 철도산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호남 대표 AI전시회 'AI TECH+' 15일 개막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AI 최신 기술·경향·미래 등 공유

세계적 AI 학술대회 'AICON 2025'와 동시 개최… 시너지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공지능(AI)산업 전시회인 'AI 테크플러스(TECH+) 2025'를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AI TECH+ 2025'는 국내외 인공지능(AI)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산업 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다. 국내외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호남 대표 인공지능 전시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와 동시 개최되는 글로벌 AI 컨퍼런스인 'AICON 2025'에서는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AI TECH+ 2025'에서는 ▲AI 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드론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이 소개된다.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인디제이, ㈔인공지능산학연합회,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테크노파크 등 인공지능(AI) 관련 55개 기업·기관의 전시 부스, 인공지능(AI) 체험존, 드론 체험관 등을 운영, 관람객들이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 첫날인 15일 오후 1시에는 ㈔한국인공지능협회 공동관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이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실제 도입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며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전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변화'를 주제로 과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궤도'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전시기간 동안 국내 투자유치 상담회,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데모데이, 해외 바이어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참관을 원하는 관람객은 AI TECH+ 공식 누리집(www.aitech-plus.com)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발급되는 큐알(QR)코드를 현장등록처에 제시하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중소기업 대상 기업 22일까지 모집

지역 경제 발전 기여한 중소기업… 이자지원 우대 등 혜택

전라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영이 건실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 2007년부터 중소기업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대상·금상·은상·동상을 수여하며, 선정기업은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으로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업체 ▲신기술 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을 선도하는 업체 ▲노사분규 및 임금 체불이 없는 업체 등이다.

전남도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해 상위 10개 이내 기업을 선정하고, 2차 중소기업 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22일까지며, 기업은 시군 및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방문 또는 우편(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중소벤처기업과/☎286-3753)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영길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가치 알린다"… 18~19일 광주서 박람회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8~19일 시청 일원에서 '제4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와 가치, 나를 위한 소비가 가치 있는 소비로'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시민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판매관, 정책홍보관, 학술행사관, 시민참여 체험존, 사회적경제 창업 상담관 등 총 120여개의 부스가 설치된다.

광주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만들고(핸드메이드 공예), 틔움직업재활센터(우리밀 쿠키·빵), 더좋은커피협동조합(수박 탄산수·커피), 청춘발산협동조합(재활용 체험), 수떡공예교육문화원(과일모찌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한다.

또 서울 목화송이협동조합(수공예품), 세종 솔티마을(복숭아와인), 강원 허브이야기(허브제품), 제주 춘삼협동조합(홍게간장) 등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16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 특산품과 사회적가치를 담은 상품을 선보인다.

박람회 개막식은 브라스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시민과 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금호고속 '광주~안양' '광주~안성' 신규 노선 운행한다

금호고속은 오는 15일부터 유스퀘어에서 경기도 안양시를, 20일부터는 경기도 안성시를 운행하는 노선을 각각 신규 운행 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안양 노선은 하루 3회 운행하며 운행 시간은 광주 출발 주중은 오전 7시 20분, 오후 1시30분, 오후 7시, 주말에는 오전 6시50분, 오후 1시10분, 오후 6시30분이다.

안양 출발 주중은 오전 8시10분, 오후 1시40분, 오후 7시40분, 주말에는 오전 7시40분, 낮 12시50분, 오후 7시40분이며 소요시간은 4시간5분, 수원을 경유해 운행한다.

안성-광주 노선은 하루 2회 운행하며, 광주 출발 오전 9시, 오후 3시이고 안성 출발 오전 9시10분, 오후 3시다. 안성중앙대를 경유해 운행한다.

요금은 광주-안양 4만1900원, 광주-안성 3만원이며, 고속버스 티머니나 티머니 Go 어플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우 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